

1960년대 한국과 오키나와 소설에 나타난 미국 패권주의의 인식과 비판

- 남정현의 『분지』와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의 『카테일
파티』를 중심으로

이 명 원*

차 례

- | | |
|-----------------------------|------------------------------|
| 1. 문학의 공통의제와 시민적 주체화 | 3. 미군의 점령지배 체제와 ‘구조화된 폭력’ 비판 |
| 2. 미국 패권주의의 본질에 대한 알레고리적 비판 |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남정현과 오시로 다쓰히로의 소설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남정현은 『분지』에서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 ‘미국의 본질’에 대해 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은 한국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그것을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었다.

1960년대의 한국은 한일협정 체결과 베트남과병 문제로 시민저항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던 이러한 사태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이 남정현의 생각이다. 그는 『분지』에서 홍만수의 발언과 행동을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그러나 설사 소설일지라도 미국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반공법 하의 한국에서 거대한 정치적 금기였다. 『분지』에서 홍만수가 미군의 부인을 강간한 결과, 펜타곤에 의한 핵공격에 직면하게 된다는 알레고리적 서사가 출현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금기 때문이었다.

오시로 다쓰히로는 『카테일 파티』를 통해 미군점령체제 아래의 오키나와의 정치적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남정현과 달리 오시로 다쓰히로의 소설은 리얼리즘의 기법으로 쓰여졌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오키나와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들 모두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각기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 그 기억들은 지배와 종속, 침략과 희생, 점령과 복종과 같은 대립되는 가치로 인물들의 내면을 혼돈에 빠지게 만든다. 특히 주인공인 ‘나’는 중국침략의 ‘가해자’이면서, 미군 점령의 ‘피해자’로서의 내면적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딸은 미군에 의해 강간당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오키나와의 현실이 날카롭게 드러난다. 주권도 시민권도 없는 오키나와의 현실이 침묵하게 부각되면서, 이 소설은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의 식민주의적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주제어 : 한일협정, 군사적 패권주의, 조국복귀운동, 미군범죄, 알레고리, 리얼리즘, 탈식민주의, 남정현, 오시로 다쓰히로

1. 문학의 공동의제와 시민적 주체화

본고는 남정현(1933-2020)의 『분지』와 오키나와의 소설가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1926-2020), 이하 ‘오시로’로 약칭)의 『카테일 파티』를 대상으로, 1960년대 중반 한국과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문제가 어떤 소설적 양상으로 나타났는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남정현의 『분지』(1965)와 오시로 다쓰히로의 『카테일 파티』(1967)이다.¹⁾

세대적으로 보면 남정현의 경우는 1933년생으로 일제말기에 소년기를 보낸 세대에 해당하고, 오시로의 경우는 1926년생으로 일본식으로 하면 이른바 전중(戰中) 세대²⁾에 해당한다. 남정현은 일제말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당시에는 서산농림학교에 재학중이었다가, 이후 대전사범학교 연수과에서 수학하지만, 10여년에 걸친 결핵투병을 하다가 1958년 『경고구역』으로 『자유문학』을 통해 등단한다. 1961년에는 『너는 뭐냐』로 제6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고, 1965년에는 『분지』를 발표하지만, 반공법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67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된다.³⁾

1) 본고에서의 논의 텍스트는 남정현, 『분지』, 『남정현 문학전집1: 단편·중편소설』, 국학자료원, 2002와 오시로 다쓰히로, 손지연 역, 『카테일 파티』, 『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선집』, 글누림, 2016이다.

2)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에 따르면, 전후 일본의 세대는 전전(戰前) 세대(1910년대생), 전중(戰中) 세대(1920년대생), 소국민(小國民) 세대(1930년대생)로 분류할 수 있다. 전전 세대는 패전 후 천황제 파시즘을 강하게 비판하고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강렬한 의욕을 보여주며, 소국민세대는 전시에는 전쟁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았던 ‘소국민’이었다가 전후에는 ‘민주주의 소년’이 된 세대로 규정된다. 한편, 오시로 등이 속해 있는 이른바 전중세대는 전전(戰前) 일본에 대한 부채의식과 전후의 희망이 뒤섞인 양가적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세대로 규정된다.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유년기를 겪은 남정현은 이른바 ‘소국민세대’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成田龍一, 『“悔恨”が誘發する思想-戦後の日本知識人の軌跡』, 『世界』, 2015. 8, 210-223쪽.

오시로는 오키나와현 나카구스쿠촌(中城村)에서 출생 후 현립 제2중학을 거쳐, 1943년 상하이의 일본 사립대학인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에 입학했다가 학병으로 징집, 1946년 미군 점령통치 아래 있었던 오키나와로 귀향해, 1967년 현재 류큐정부의 통상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⁴⁾ 1967년 『신오키나와문학(新沖繩文學)』 4호에 발표한 「각테일 파티」가 오키나와 문학으로서는 최초로 제57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면서,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현대작가로 평가받게 된다.⁵⁾

그렇다면 필자는 왜 이 두 소설을 비교 검토하고자 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주제 의식의 공통성에 주목할 만하다. 남정현의 「분지」가 한국전쟁 이후 냉전의 방과제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지배 체제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오시로의 「각테일 파티」 역시 미군기지로 상징되는 미국의 점령지배체제가 초래하는 뒤틀린 오키나와 상황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주의적 지배/통치체제 이후에도 이 두 지역은 미국의 군사 패권체제로 인한 주권의 제약이 여러 형태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포스트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예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이른바 ‘1965년 체제’⁶⁾라는 역사적 조건의 공통성 역시 염두에

3) 「생애 및 작품연보」,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335-338쪽.

4) 『文藝春秋特別編集 芥川賞・直木賞150回全記録』, 株式會社 文藝春秋, 2014, 86쪽.

5) 大城貞俊, 『沖繩文學への招待』, 琉球大學ブックレット, 2015, 80쪽.

6) ‘1965년 체제’라는 조어는 하상일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베트남파병은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얻어낸 경제 원조의 대가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에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이와 같은 냉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우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둘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1965년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 없는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된 해인 동시에,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시작된 해이다. 한일기본협정이나 베트남 파병 결정 모두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전략적 의도도 개입된 문제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극동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 유지를 위한 한·미·일의 정치·경제·군사적 결속이 강제된 것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연히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한일협정의 체결이 ‘신식민주의’에 다름 아닌 종속적 체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⁷⁾ 바로 이런 시점에 남정현의 『분지』가 발표되어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격렬한 비판적 서사를 전개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미국의 점령지배 체제 아래 있었던 오키나와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베트남전쟁이 진행되면서 더욱 밀착된 ‘미일 협조체제’의 이면에는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라는 ‘구조적 차별’이 숨어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출격기지이자 요새화된 핵기지로 전략한 오키나와에서는 기존의 ‘토지반환투쟁’에 더해, 베트남전 반대운동 역시 격렬해졌다. 미 점령당국에 대한 오키나와인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급기야 일

한일 청구권 문제를 경제 원조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를 했다.” 하상일, 『식민지의 연속성 비판과 동아시아적 시각의 확장』,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3, 35-36쪽.

7) 최현식은 1965년의 한일협정을 ‘경제적 신식민화’로 규정한다; “미국은 한국 원조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일본도 이에 화답하여 그들 독점자본의 세계 진출과 안정적인 이윤 획득을 위해 한국을 향한 경제적 상륙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이 전제적인 권력 장악과 확대를 위해 치밀하게 기획했던 위로부터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부유한 타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며 궁핍한 자국의 개척과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신식민화로의 조심성 없는 행보에 훨씬 가까운 것이었다.” 최현식, 『(신)식민주주의의 귀환, 시적 응전의 감각-1965년 한일협정과 한국현대시』, 『현대문학의 연구』 70,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2. 28, 243-244쪽.

본으로의 재귀속을 요구하는 이른바 ‘조국복귀운동’이 폭발한 것이 1960년대다.⁸⁾ 특히 1965년에는 일본의 수상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오키나와를 방문해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하지 않는 한에서는, 일본의 전후는 끝나지 않는다.”며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주었다.⁹⁾ 바로 이런 시점에 오시로는 『커피 파티』를 통해 미국 점령체제의 문제를 소설적으로 폭로한 것과 아울러, 자신의 개인사와도 얽혀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끈질긴 상흔을 서사화 하였던 것이다.

셋째, 한국과 오키나와 전후를 규정짓는 ‘분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 한국과 오키나와는 공히 미군정체제로 전환된다. 1948년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이후의 한국전쟁을 통해 분단은 고착화된다. 한편, 1945년 오키나와 전투의 패배 이후 미군의 점령지배 체제로 들어간 오키나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완전히 일본의 주권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미국의 통치체제에 귀속되게 된다.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단되고 이것이 후에 휴전선으로 확정되었다면, 전전(戰前) 일본에 귀속되었던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의 종결 이후 북위 27도선을 기준으로 일본과 ‘분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두 소설을 겹쳐 읽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은 개별 국민문학 혹은 지역문학의 범주에서 독립적으로 읽었을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동아시아 문학의 공통의제와 시민적 주체화의 열망을 두 작품의 분석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군사적 패권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 ‘문학의 기능’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 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분리·파편화될 수밖에 없었던 동시기의 대중적 기억과 정동들을 연결시켜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를 문학이라는 장(場) 안에서 협력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은 명백해 보

8) 이상의 내용은 모리 요시오(森宣雄), 김용의·김희영 역, 『전후 오키나와의 평화운동』, 민속원, 2020, 157-189쪽 참조.

9) 新城俊昭, 『琉球・沖繩史』, 編集工房 東洋企画, 2014, 356쪽.

인다.

2. 미국 패권주의의 본질에 대한 알레고리적 비판

남정현은 1965년 『현대문학』 3월호에 「분지」를 발표한 후, 7월 9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공위반으로 구속된다. 7월 14일에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같은 달 23일 구속적부 심사 끝에 석방되었다가, 1966년 7월 23일에 불구속 기소된다. 남정현에 대한 적용법조는 반공법 제 4조 1항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이었다.¹⁰⁾

물론 「분지」의 그 어디에서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도한 것 역시 아니다. 남정현 자신은 이 작품의 집필동기에 대해 “민족 주체성의 상실, 정권의 부패, 빈부의 격차 그리고 권력의 횡포 등이 심한 우리의 현실을 고발,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다”¹¹⁾고 주장했다. 문학의 현실비판적 기능에 충실했을 뿐, 이것이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찬양·고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소설은 북한이나 용공세력 찬양과는 무관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불온한 작품으로 간주된 근본원인은 필자의 판단에 그것이 ‘미국의 본질’을 묻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분지사건」의 주심판

10) 한승헌, 「남정현의 필화, 「분지」 사건」,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279쪽.

11) 한승헌, 위의 글, 289쪽.

사인 박두환 판사의 판결문 내용의 핵심은 ‘반미(反美)사상’과 ‘반미(反美)감정’을 고취시키는 작품이라는 점에 있었다.¹²⁾ 미국의 본질을 묻고 있기는 하지만, 이 소설은 풍자적인 톤으로 구성된 알레고리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반미사상은 표면적으로 부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대한 감정 또한 선명한 적대감이 아니라 ‘선망’과 ‘혐오’가 중첩된 양가적(ambivalent) 성격을 띠고 있다.¹³⁾ 특히 여성의 성(性)을 매개로 한 소설적 전개, 즉 해방기 점령군 미군에 의한 강간(어머니), 주한 미군 스피드 상사에 의한 성적 학대(여동생 분이), 홍만수에 의한 주한 미군 배우자에 대한 성적 복수(비취 여사)가 주된 사건으로 전경화되기 때문에, 이 소설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즉 『분지』가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외세를 문제삼”아 “‘운명론’의 자장에서 벗어나 주체와 세계를 합리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남정현의 “인식의 깊이가 60년대 문학의 최고경지”에 이르렀다는 고평(高評)이 존재한다.¹⁴⁾ 반면, 남정현의 소설에 재현된 여성의 성(性)

12) “『분지』는 남한의 현실을 왜곡하고 허위 선전하여 빈민대중에게 계급 및 반정부의식을 부식 조장하고 반미감정을 조성시켜 반미사상을 고취할 요소가 있는 단편소설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은 북괴의 대남적화 전략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 한승원, 위의 글, 292쪽.

13) 그런 점에서 『분지』의 홍만수를 ‘편집증자’로 보고, ‘최초의 반미소설’이라는 평가를 회의하는 연구가 나타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반미소설’이란 문학사적 평가가 이어지는 작품이니만큼, 저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믿지 못할 나라 미국(펜타곤)이다. 그러나 그 미국의 권력과 전쟁 무기에 맞서는 홍길동의 후예도 믿을만한 화자는 못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원자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고 “런닝샤쓰”로 태극기를 만들어 “구름을 잡아타고 바다를 건너” “그 위대한 대륙에 누워 있는 우유빛 피부의 그 윤이 자르르 흐르는 여인들의 배꼽위에 제가 만든 이 한 폭의 황홀한 깃발을 성심껏 꽂아 놓을” 참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편집증자이기 때문이다.” 김형중, 『남정현 소설에 나타난 정신병리와 권력의 테크놀로지』,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0. 2, 301쪽.

14) 강진호, 『외세의 질곡과 민족의 주체성』,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혹은 젠더 인식의 왜곡을 근거로 『분지』가 ‘식민지 남성성’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민족문학의 기수로 평가받는 남정현의 일련의 작품은 식민지 남성성이라 할 만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나는 미국 남성에 대한 동일시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처럼 되는’ 부국강병에의 욕망이다. 이는 반미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일시 욕망이다.¹⁵⁾

이것은 홍만수의 표면적인 ‘반미(反美)’적 태도를 ‘주체화’로 읽는 것과 정확히 대칭적인 지점에서의 해석이다. 정희진의 해석대로 “반미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일시 욕망”이라고 『분지』의 홍만수의 태도를 규정하면, 그것은 오이디푸스적 선망에 따른 심리적 동화(同化)와 종속에 불과한 것이기에, 『분지』의 사상적 ‘불온성’은 사실상 근거 없는 것이 된다. 필자는 이런 과감한 단정적 가치평가보다는 “남정현에게 여성의 육체는 단순히 상징이나 남성 주체의 욕망을 타자에게 전치시키는 행위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를 인식하고 서술하는 방법론적 통로”¹⁶⁾라는 해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소설에 나타난 미국 인식의 징후적·알레고리적 성격을 서사기법과 관련해서 정밀하게 읽어내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성(性)에 대한 폭력과 착취의 정황을 통해 중심서사가 전개된다. 착취와 폭력의 주체는 물론 남성이지만, 이 폭력을 구조화하는 근본적인 동인(動因)은 해방 이

국학자료원, 2002, 74쪽. 대체로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남정현의 『분지』를 고평하는데, 주요한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중서, 『현실을 초극하는 집요한 문학정신』; 김병걸, 『상황악에 대한 끈질긴 도전』; 류양선, 『풍자소설의 민족문화적 성과』, 임현영, 『반외세 의식과 민족의식』 등이 그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15) 정희진, 『한국전쟁과 식민지 남성성』, 『녹색평론』 2020. 5-6, 104-105쪽.

16) 임경순, 『남정현 소설의 성 - 여성과 윤리, 그리고 반공주의』, 『상허학회』 21, 상허학회, 2007. 9. 30, 77쪽.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 기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이나 착취가 악순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남정현은 이 구조화된 성폭력의 문제를 리얼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 소설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사실상 영구주둔하게 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체제가 초래하는 문제를, 이를테면 ‘총체성’의 관점에서 재현하는 것을 애초에 단념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소설을 알레고리 기법으로 창작하게 만든 조건이었다.

서술적 톤 자체가 애초에 사실적 재현과는 무관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1인칭 고백체로 서술되는 홍만수의 존재 역시 저 과거의 허구적 인물인 홍길동의 10대손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허다한 ‘비현실적인 설정들’을 관용하면서 읽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자 보란 말이다. 이놈의 새끼야. 아 내 밑구멍을 좀 똑똑히 보란 말이었. 아이고 분해, 이놈의 새끼야, 좀 얼마나 더러워졌나를 눈을 비비고 좀 자세리 보란 말이었.”

그러면서 밑에 갖다 댄 저의 골통을 사정없이 쥐어박으시더군요. 저는 아마 과량게 질렸었지요. 저는 그때 광란하듯 흔들리는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는,

“아이고 엄마, 엄마.”

잘 울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던 기억만이 지금 어렴풋이 남아있으니 깁니다. 하지만 어머니, 당시 저는 그렇게 수습할 수 없는 경황 중에서도 당신의 가랑이 사이에 참으로 예기치 않았던 기이한 형태의 기관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놀라움과 동시에 일종의 쾌감 비슷한 감정으로 하여 아랫도리가 다 자르르 흔들렸다면 그래도 당신은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여 주시겠습니까.(.....)어쨌든 당신은 미군(美軍)한테 겁탈을 당하고 미쳤다는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가운데 알몸이 되어 얼마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시더군요. 그리고 연방 무슨 소린지 모를 소리를 지르시며 사타구니만을 열심히 쥐어뜯으시던 어느 날, 당신은 갑자기 목구멍이 터져라 하고,

“이 죽일 놈들아! 날 죽여다오.”
 애절하게 외마디 소리를 치시더니 영 그냥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¹⁷⁾

위의 인용문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어머니는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 강간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증과 히스테리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묘사와 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일종의 쾌감 비슷한 감정”을 어머니의 “아랫도리”를 보고 느낀다는 점에서, 정상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술 자체도 비합리적이며 모자 간에 벌어지는 히스테릭한 행위 역시도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인용문을 읽으면, 이것은 미군에 의한 ‘강간’을 작가가 노골적으로 고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디기 힘든 비극적 결과임에도 흥만수 자신은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을 꼭 잊어야만 한다”¹⁸⁾는 반동적 의지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정현의 『분지』는 우화적 혹은 알레고리에 기반한 작품이다. 알레고리는 “유기적 통일성을 바탕 삼은 상징의 미학을 거부하고, 수렴 불가능한 단절과 차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포착”하는 서사기법이다.¹⁹⁾ 이 설명에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알레고리가 “무엇을 재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재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발생한다.”는 것과 함께, 이것이 “유토피아적 충동의 파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는 지적이다.²⁰⁾ 이를 간명하게 정리하면,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는 작가적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알레고리적인 서사기법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랬을 때

17) 남정현, 『분지』, 『남정현 문학전집1: 단편·중편소설』, 국학자료원, 2002, 384-385쪽.

18) 남정현, 위의 책, 385쪽.

19) 오길영, 『포스트미메시스 문학이론: 루카치에서 들뢰즈까지』, 느티나무책방, 2018, 341쪽.

20) 오길영, 위의 책, 342쪽.

서사의 ‘부조화’와 ‘과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 혹은 체제의 압력을, 작가가 넘어설 수 없음에도 넘어서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서사적 고안 형식이 알레고리다.

필자의 판단에 『분지』에 은폐되어 있는, 남정현이 재현하고 담론화하고자 했던 서사적 목표는 1965년 현재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란 어떤 성격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5·16 군사쿠데타를 경험한 반공주의 병영국가 한국에서 그것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담론으로 ‘전경화’되거나 ‘발화’될 수 없는 압도적인 금기이다. 이 소설이 쓰여졌던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한일협정 협상이나 베트남과병 문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지배와 관련된 문제로 남정현 자신으로서 비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소설적 화두였을 것이다.²¹⁾

그러나 일련의 정치적 제약 상황 속에서 이것을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그러니까 총체성의 관점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특히 ‘미국 문제’가 그렇다. 1945년 이후 한반도와 극동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에 의해 사실상 강제된 한일협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과 연동해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뜻하는 바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미국 중심 군사패권체제의 안보담론의 영역이다. 사실상 당시의 한국작가들에게 이러한 질문과 분석적 비판은 표현의 영역에서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설 속의 흥만수는 “이런 세상이란 말할 것도 없이

21) 임현영은 남정현이 『분지』를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19 같은 민족적 희망이 왜 5.16 같은 폭압으로 압살당해버렸느냐를 추궁하다가 그 배후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외세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그 답답함과 울분을 기초로 『분지』를 구상했던 것이다.” 임현영, 『풍유의 미학적 예시』, 『한국소설, 정치를 통째하다』, 소명출판, 2020, 322쪽.

이런 세상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마저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지 뭐니까”²²⁾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종종 이런 항변 뒤에 ‘빠 있는 현실진단’이 발화되기도 한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대충은 다 알고 있으니깐요. 민중을 위해서 투쟁한 별다른 경험이나 경륜이 없이도 어떻게 ‘반공’과 ‘친미’만을 열심히 부르짖다 보면 쉽사리 애국자며 위정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이란 것도 알고요. 오로지 정치자금을 제공한 몇몇 분들의 이익과 번영만을 위해서 입법이며 행정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재현의 욕망이 고조되지만, 결코 재현될 수 없다는 상황의 딜레마 속에서, 그 소설적 작의(作意)를 감추면서 드러내고, 드러내면서 감추는 수법을 활용된 결과 나타난 것이 알레고리적 서사의 파편성이라는 점을 우리는 납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주한 미군인 스피드 상사의 현지처가 된 분이의 현실에 대한 남정현의 양의적인 서술이나, 비취 부인을 향미산 정상으로 유인하여 “그녀의 하반신을 한번 관찰함으로써” “의문을 풀고 싶었을 뿐 다른 아무런 흥계도 흑막도 없었”다는 자기 방어적 진술이나, 비취 부인과의 사이에 벌어진 사건 등은 소설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남정현이 이 파편적인 사건 혹은 에피소드를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은폐된 질문은 한국에 점령군처럼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상사 스피드는 분이의 하반신을 지속적으로 희롱하고 착취하며 폭행을 가해도 결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구조화된 폭력), 왜 홍만수의 비취 부인에 대한 일회적 행위(일회적 폭력)는 “핵무기의

22) 남정현, 앞의 책, 379쪽.

23) 남정현, 위의 책, 379쪽.

집중공격으로 팽하고 터져야”²⁴⁾ 하는가 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적 역학관계에 대한 노골적 질문이다.

기가 막히는군요. 저보고 이젠 뭐 강간자라구요. 이게 다 거의 헛소리라면 당신은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설혹 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간을 했다면 왜 천벌을 받습니까. 당신을 강간하여 저승으로 인솔하기까지 한, 어떤 코 큰 친구도 천벌을 받았다면 혹시 또 모르지만 말입니다.²⁵⁾

미군에 강간당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홍만수는 이렇게 외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홍만수나 미군병사 개인의 강간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 인용문에서의 홍만수의 항변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비대칭적인 ‘패권적 역학관계’에 대한 알레고리적 비판으로 읽어야 할 대목이다. 이 부분에서 남정현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해방 이후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한국에서의 ‘미군의 특권적 법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발표될 당시까지의 미군의 특권적 법적 지위란 “① 미군군법회의가 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인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것, ② 한국인이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했을 때 미군은 그 한국인을 구속할 것, ③ 주한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전협정(주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정(1950. 7. 12 체결))에 기인한 것이었다.²⁶⁾

『분지』에서 홍만수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미군에 의한 범죄와 폭행, 그리고 홍만수 자신의 무자비한 핵공격에 의한 죽음 가능성 등의 소설적 설정이 가능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한미 간의 불평등한 협정과 이에

24) 남정현, 위의 책, 378쪽.

25) 남정현, 위의 책, 387쪽.

26) 김보영, 『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내용과 문제점』, 『내일을여는역사』 제3호,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00. 10, 109쪽.

따른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행태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남정현의 「분지」가 홍만수의 부조리한 행위를 통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소설적 진실은 이러한 한국에서의 미국의 패권적·점령군적 성격에 대한 폭로와 비판과 함께 한국의 종속적 주권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소설적 전언이다.

그런데 「분지」 연구에는 또 하나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핵무장' 문제로, 홍만수가 핵공격에 의해 죽게 될 상황에 있다는 비현실적 설정 때문에, 이 모티프가 가진 중요성이 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이 소설에는 두 군데에서 홍만수가 핵공격에 의해 죽을 것이라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a) 탓으로 **핵무기의 세례**가 아닌 '노아'의 홍수가 다시 한 번 지상을 휩쓸더라도 그 노아의 방주엔 제가 제일 먼저 타야 할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강조-인용자)²⁷⁾

b) 이제 머지 않아 **핵무기의 집중공격**으로 불꽃처럼 광하고 터져야 할 몸. 그렇다고 제가 죽을 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니, 이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에 서서 제가 아무렴 하늘 따위를 상대로 하여 이러니 저러니 정감을 자아낼 수 있겠습니까.(강조-인용자)²⁸⁾

「분지」가 발표되었던 1965년 현재 주한미군이 핵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가 없고,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²⁹⁾ 그런데 남정현은 두 번씩이나 홍만수가 '펜타곤'의 지시

27) 남정현, 앞의 책, 377쪽.

28) 남정현, 위의 책, 378쪽.

29) 남정현은 1990년 10월 27일 국제핵병기철폐운동연대가 주최한 '국제평화 동경포럼'에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세계평화의 디딤돌」이라는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에서 "풍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한국엔 미군에 의해 천여 개나 되는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라며 분노를 표시한다. 『남정현 문학전집3: 단편·중편소설』, 국학자료원, 2002, 329쪽. 이것은 「분지」에서의 핵공격 모티프가 단

에 따라 향미산과 함께 ‘핵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의해 홍만수가 죽을 것이라는 설정은 소설 자체로만 보면 과대망상처럼 보인다. 홍만수 개인을 응징하기 위하여 ‘펜타곤’이 향미산 지역 전체를 핵공격한다는 모티프는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개연성이 전혀 없는 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알레고리적 서사를 통해 남정현은 돌출적으로 주한미군의 핵무장 상황의 실상을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계몽적·비판적 각성효과를 초래한다.³⁰⁾ 이 진실의 파편을 느닷없이 돌출시키는 일이 홍만수의 부조리한 행위들과 편집·분열증적 고백의 서사적 목표다. 이를 통해 『분지』의 정치적 알레고리는 분명해진다. 한반도에서의 미국 패권의 군사적 본질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었던 것이다.

3. 미군의 점령지배 체제와 ‘구조화된 폭력’ 비판

남정현의 『분지』가 미국의 군사패권 체제를 알레고리적으로 비판한 작품인 데 반해, 오시로의 『커피 파티』는 미군의 점령체제 아래서의 이른바 ‘류미(琉美) 친선’이라는 명분의 이면에 드리워져 있는 ‘기지의 섬’ 오키나와의 착종된 식민자/피식민자 정체성을 은유적으로 극화(劇化)하고 있는 작품이다.

순한 공상의 산물이 아닌, 치밀한 추론이 결과였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30) 한국전쟁 이후 해외 주둔 미군의 핵무장이 본격화되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만 보면, 1954년부터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 핵무장이 시작되었다. 한국, 대만, 필리핀, 쿠바 등에도 비슷한 시기부터 핵무장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료에 따르면 1980년 현재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수는 151개, 핵병기 시설은 21곳이었다. 林博史, 『米軍基地の歴史』, 吉川弘文館, 2012, 70-76쪽.

오시로의 『카테일 파티』에 대해서는 오키나와에서도 여러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주로 논의된 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다. 소설 속의 ‘나’의 고뇌가 근대 이후 오키나와인들의 중층적 고뇌를 보여준다는 점, 미군통치 시대의 오키나와인을 피해자이자 동시에 중국침략의 가해자로 보는 복합적 시점을 도입했다는 점, 전후 오키나와라는 공간 안에서 공통체로 환원되지 않는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탐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³¹⁾ 근년 들어 한국에서도 오시로의 『카테일 파티』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³²⁾,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활발한 편이 아니다.

이 소설은 전장(前章)과 후장(後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장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후장은 2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장의 경우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 미군방첩대)³³⁾의 비밀요원인 미스터 밀러가 미군기지 내 클럽에서 ‘중국어 연구모임’을 취지로 ‘카테일 파티’를 주최하고, 여기에 류큐정부 산하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나(오키나와인), 신문기자인 오가와(일본 본토인), 변호사 쑤(오키나와에 체류하는 망명 중국인) 등이 나누는 대화가 주로 서술된다. 나중에 딸의 ‘유괴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태의 주인공이 되는 미군 군속 미

31) 大城貞俊, 『沖繩文學への招待』, 琉球大學ブックレット, 2015, 81쪽.

32) 『카테일 파티』를 대상으로 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박정이, 『오시로 다쓰히로 『카테일파티』에 나타난 전후 ‘오키나와’의 위상』, 『일어일문학』 44, 대한일어일학회, 2009. 11; 백지운, 『폭력의 연쇄, 연대의 고리』, 『역사비평』 103, 역사비평사, 2013.5; 손지연, 『젠더 프레임을 통해 본 미 점령기 오키나와 소설 : 오시로 다쓰히로와 히가시 미네오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5, 중앙어문학회, 2013.9; 손지연, 『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에서 ‘미군’이 내포하는 의미 : 오키나와 · 미국 · 일본 본토와의 관련성을 시야에 넣어』, 『일본연구』 39,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8.

33) 미군 방첩대(CIC)의 편제나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해방 직후 CIC가 한국에서 비밀리에 펼쳤던 방첩활동, 정치 및 사회단체 동향 보고 및 사찰, 대북정보 수집 등의 임무가 유사한 방식으로 미점령기 오키나와에서도 전개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에서의 CIC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용욱, 『해방 직후 주한미군 방첩대의 조직 체계와 활동』, 『한국사론』 53권, 서울대 국사학과, 2007. 6을 참조할 것.

스터 모건도 등장하며, 후장에서 서술자인 ‘나’의 딸을 강간하게 되는 미군 병사 로버트 할리스도 소설의 도입부에서 잠시 언급되어 소설의 복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기지 안의 군 클럽에서 ‘카테일 파티’를 하게 된 것일까. CIC요원인 미스터 밀러가 ‘중국어’를 매개로 각각의 인물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친교모임을 조직한 것인데, 밀러의 입장에서는 이 모임을 통해, 오키나와 안의 사회·정치 동향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에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나’가 공무원이고, 오가와가 일본 본토 출신의 신문기자이며, 쑨이 망명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보면, 밀러의 입장에서는 극동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를 오키나와, 일본, 중국을 동시에 시야에 두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카테일 파티는 ‘정보수집의 카테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밀러를 제외하고 등장인물들은 각기 상이한 중국에서의 체험을 간직하고 있다. 국민당 계열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망명해 오키나와에 체류하고 있는 변호사 쑨은 일본군의 점령지구였던 W에서 4살된 장남이 “일본헌병대가 보호하고 있었”던 경험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이를 데려가는데 여러 심문을 받”고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일본군에 점령된 도시가 “과연 내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떠올랐고, 중국공산당의 해방구였던 “마을 집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과연 내 동포인가”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³⁴⁾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군 헌병대는 과연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유괴했던 걸까?”³⁵⁾

‘나’는 중국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나’는 1940년대에 중국의 “상하이 학원에 입학”³⁶⁾해 공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촉탁 신분”

34) 오시로 다쓰히로, 손지연 역, 『카테일 파티』, 『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선집』, 글누림, 2016, 69쪽.

35) 오시로 다쓰히로, 위의 책, 69쪽.

으로 “상하이 교외에서 군수품 접수 통역”으로 일했다는 것이 고백되고 있다.³⁷⁾ 이것은 작가인 오시로의 중국체험이 투영된 인물설정으로 보인다. 그는 1943년에 상하이의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에 입학했다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징병되어 일본군으로 복무했다.³⁸⁾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은 1901년 설립 당시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평범한 고등교육기관이었으나, 1940년대가 되면, 고다마 요시오(兒玉譽士夫)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상하이에 설립했던 특수정보기관의 조정을 받는 대학으로 전락한다.³⁹⁾ 중국침략의 주요한 거점기관 중 하나였다. 『카테일 파티』에서는 일본군으로서의 ‘나’의 중국 내 침략 행위나 전쟁범죄 등에 대한 꾀진한 자의식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거나 재현되고 있지는 않으나⁴⁰⁾, 망명 중국인인 쑨과의 대화를 통해 언표되지 않는 죄의식과 불안이 지속적으로 공명되고 있다. 1945년 3월 20일에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쑨의 질문에 ‘나’는 “그 전 해에 학원을 졸업하고 군 입대 후 장교가 되어 남경 주변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⁴¹⁾, 전쟁책임을 의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신문기자인 오가와와는 어떤 인물인가. 소설을 보면 그는 “북경에서 태어나 도쿄에 있는 외국어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운 것으로 되어 있다.⁴²⁾ 오가와와 전쟁체험과 관련한 서술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연

36) 오시로 다쓰히로, 위의 책, 61쪽.

37) 오시로 다쓰히로, 위의 책, 50쪽.

38) “나는 젊은 시절 상하이 소재의 일본 대학에서 수학했고, 학업 도중 징병으로 군대를 체험한 바있습니다. 그때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차별과 가해의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오시로 다쓰히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선집』, 글누림, 2016, 8쪽.

39) 임현영, 『5·16 정권에 대한 인문학적 보고서』, 『한국소설, 정치를 통째로 통째로』, 소명출판, 2020, 300쪽.

40) 상하이에서의 작가의 전쟁체험은 『아침, 상하이에 서다』(1983)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된다. 손지연, 『패전 전후 제국/오키나와 청년의 중국체험과 마이너리티 인식』, 『전후 오키나와 문학을 사유하는 방법』, 소명출판, 2020 참조.

41) 오시로 다쓰히로, 앞의 책, 98쪽.

배 상으로 그는 ‘나’와 ‘쑨’ 보다는 젊은 세대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45년 당시에 그는 중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소설의 전장에서 오기나와 미군에 의한 오기나와 “점령체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말하는가 하면⁴²⁾, 중국의 작가 귀머리(郭沫若)의 『파도』를 언급하면서, 밀러를 향해 “당신들 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공산당 출신 작가라고 하면 말도 꺼내기 전에 배신자라고 생각하죠(...) 그런 정신이 미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라며, 거리낌 없이 공박하는 인물이다.⁴⁴⁾ 미국에 의한 오기나와 점령체제는 물론이고, 밀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냉전적 아시아 인식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거리낌 없이 발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소설의 전장에서 오기나와인으로서 ‘나’의 긴장감 고조시키는 것은 미 군속인 모건의 딸의 실종이 혹 오기나와인 메이드(가정부)의 ‘유괴’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점령지배 체제 아래서, 그것도 미국의 주권적 영역인 군사기지 안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상정해 본 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긴장감은 심도가 깊다. 물론 그것은 오해로 드러난다. 반면, 이 소설의 후장에서는 ‘나’의 고교생 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군 병사인 로버트 할리스에 의해 강간당하지만, 이후 절벽으로 로버트 할리스를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미군 CID(미군 범죄정보수사대)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처지에 빠지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장면인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기나와에 대한 미군 점령 체제의 모순이 날카롭게 부각된다.

『카테일 파티』의 후장(後章)에는 미군에 의해 강간당한 딸의 부조리한 미군에 의한 처벌 위협 앞에서, ‘너’가 “포령(佈令) 형법 1절”을 떠올리는 장면이 존재한다. 이것은 오기나와 주둔 미군의 ‘특권적 법적 지위’를 드러내면서, 주권 부재 하의 오기나와 주민들이 직면해있는 점령지배

42) 오시로 다쓰히로, 위의 책, 50쪽.

43) 오시로 다쓰히로, 위의 책, 49쪽.

44) 오시로 다쓰히로, 위의 책, 55쪽.

체제의 모순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미세스 밀러의 풍만한 이중 턱이 네 눈에 강하게 들어왔다. 너는 포령(布令) 형법 제1절을 떠올렸다.

“합중국 군대요원의 부녀자를 강간 또는 강간할 의사를 갖고 폭행을 가한 자는, 사형 또는 민정부 재판소가 명하는 다른 형에 처한다.”

만약 그 형법에 준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만일 그 피해자가 미세스 밀러였다면 그리고 또 그 가해자가 너였다면, 미스터 밀러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쏜 씨와 오가와 씨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세간의 오키나와인과 미국인의 교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⁴⁵⁾

위의 인용문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정현의 『분지』에서 일어난 바 있는 홍만수에 의한 비취 여사 강간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분지』를 분석하는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은 작가 남정현이 한국에서의 주한 미군의 ‘특권적 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을 부조리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법으로 채용한 것이었고, 그 결과 펜타곤에 의한 핵공격으로 홍만수는 물론 향미산 일대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시로는 『카테일 파티』를 통해서 남정현이 『장마』에서 서사화했던 사건을 자신이 직면하게 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상상해 보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상상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점령군인 미군의 범죄를 오키나와인들이 단죄할 수 없는 주권의 부재 혹은 ‘정치적 무권리’ 상황에 대한 오키나와인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미군에 의한 장기간의 점령지배체제 아래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있었다.

전시법령에 의해 주민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오키나와 현지에서 봉쇄되었다. 특히 맹위를 떨친 것은 오키나와전 개시와 동시에 시행되

45) 오시로 다쓰히로, 위의 책, 83쪽.

어 1972년 시정권 반환까지 존속했던 ‘전시형법(후에 류큐형법 및 소송 절차 법전)’이었다. 이 법은 오키나와를 통치하는 미군과 군인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주민을 단속하는 형법전(刑法典)이다. 이 법으로 미군은 강제토지점수에 대한 반대나 일본복귀 요구 등 점령 정책을 비판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그 집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임의로 체포 투옥(납치 감금)하고, 미국 군인이 재판관·검사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즉결재판으로 형을 과하였다. (.....)

한편으로 미국 군인의 오키나와 주민 살상사건 등은 군법회의(군사법정)에서 처리되었다. 이는 피해자 혹은 유족의 방청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비밀재판으로, 결과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문제시되지 않았다. 점령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이며 오키나와 주민의 인권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⁴⁶⁾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오키나와 주민은 완전한 무권리 상태인 데 반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전시형법’에 따라,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 이 소설이 발표된 1965년 현재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1965년이라는 시간대는 오키나와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군점령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던 시점이었다. 1965년의 한국이 한일협정과 베트남과병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항쟁이 지속되던 상황과 그것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오키나와 역시 1965년 2월 미군에 의한 베트남 전쟁의 북쪽 배후기지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중요한 시민적 화두가 되었다. 동시에 1960년 4월 28일에 결성된 ‘오키나와현 조국복귀협의회’를 중심으로 평화헌법 체제 하의 일본으로 복귀하자는 ‘조국복귀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상황임과 동시에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를 강하게 발신하던 시점이었다.⁴⁷⁾

46) 모리 요시오(森宣雄), 김용의·김희영 역, 『전후 오키나와의 평화운동』, 민속원, 2020, 120-121쪽.

47) 이 시기의 조국복귀운동과 오키나와인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新城俊昭, 『琉球・沖縄史』, 編集工房 東洋企画, 2014, 355-360쪽 참조.

이러한 오키나와 내부의 사회적·정치적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쓰여진 소설이 「칵테일 파티」였기 때문에, 파티를 가능케 하는 구호인 ‘류미친선’(류큐/오키나와와 미국의 친선)의 허구성이 이 소설 속에서 날카롭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미국에 의한 오키나와 ‘점령’의 본질도 철저하게 질문될 수 있었다.

- 쑨선생.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라에 속죄하는 일이나 내 딸의 속죄를 요구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 모임에 와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한심하지만, 이 기회에 서로에게 불필요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고발하려는 것은 사실 미국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칵테일 파티 그 자체입니다.

밀러- 인간으로서 슬픈 일이네요.

- 미스터 밀러. 포령 제144호, 형법 및 소송수속법전 제2·2·3조를 알고 계시나요?

밀러- 제2·2·3조?

-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합중국군대요원의 강간죄, 그것이 있는 한, 당신의 소망은 모두 허망에 불과해요. 안녕히 계세요.

너는 클럽을 빠져나왔다.

클럽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Prosperity to Ryukyans 류큐인에게 번영이 있기를
and may Ryukyans 류큐인과 미국인이
and Americans always be friends. 언제나 친구이기를 바란다.

파티가 있기 일주일 전 치러졌던 페리 내항 ‘100주년’⁴⁸⁾ 행사 때 만들어진 것이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새겨입은 후, 너는 경찰서를 향

48) 소설의 일본어 원문에 따르면 ‘110주년’이 맞다. ‘100주년’은 오기(誤記)로 보인다. 동인도합대 사령관 페리 제독이 오키나와에 최초로 내항한 것은 1853년 4월이었다. 그는 일본과의 통상교섭이 실패할 경우 대체지로 류큐를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新城俊昭, 『琉球・沖繩史』, 編集工房 東洋企畫, 2014, 192쪽. 한편 소설에서 페리내항 110주년 행사가 일주일 전에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칵테일 파티」의 시간적 배경이 1963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해 발을 옮겼다.⁴⁹⁾

위의 인용문은 『카테일 파티』의 작의(作意)를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대단원에 해당한다. 그것은 두 가지다. 첫째,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속죄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 가령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오키나와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들은 상호 간에 가해와 피해가 얽혀 있는 존재로, ‘카테일’로 상징되는 기계적·화학적 조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일본의 침략전쟁에서의 중국/중국인에 대한 전쟁책임, 일본인의 오키나와/오키나와인에 대한 침략과 식민화의 책임, 일본의 태평양전쟁과 미국에 대한 책임,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지배의 책임 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역사와 전쟁의 책임은 개인적 관용의 범주를 넘어선다.

제대로 된 속죄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가짜 친선으로서의 “카테일 파티”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 소설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필 클럽을 빠져나오면서 ‘너’는 “류큐인과 미국인이 언제나 친구이기를 바란다.”는 페리내항 110주년(1863년) 행사 때 만들어진 현수막을 “꼼꼼히 새겨 읽”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오키나와와 미국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 판단된다.

페리가 오키나와에 내항한 이유는 대중국무역의 기항지로서 오키나와를 점령·활용하기 위한 까닭이었다. 일본의 개국(開國)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오키나와와 미국의 최초의 만남을 소설 속의 1963년 현재의 상황에서 ‘친선 110주년’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부조리다. 소설 속의 오키나와는 사실상 미국의 점령지·식민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이것은 페리의 내항으로부터 시작된 친선이라는 가짜 호명

49) 오시로 다쓰히로, 앞의 책, 116-117쪽.

의 ‘구조적 폭력’이다.⁵⁰⁾ 일본과 미국에 의해 ‘기지의 섬’이 된 오키나와와 ‘친선’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미군의 점령지배 체제를 ‘류미친선’으로 은폐·분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 소설의 주인공인 “너”는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설의 결론이다. 각테일 파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것. 오키나와와 미국의 각테일(친선)이란 점령지배 체제의 본질 속에서, 허구에 불과한 구호였다는 것을 이 소설은 강력하게 상기하고 있는 셈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남정현의 『분지』와 오시로의 『각테일 파티』의 공통의제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두 소설은 이른바 ‘1965년 체제’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체제의 변화 속에서 쓰여졌다.

한국에서는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시민적 저항이 지속되는 와중에 『분지』가 쓰여졌고,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의 점령·지배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조국복귀운동’이 가열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테일 파티』가 쓰여졌다. 동시에 오키나와는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북베트남의 ‘북폭’을 위한 배후 군사거점이었기 때문에, 미국 패권과 군사주의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매우 큰 것이었다.

50) 페리의 내항은 『각테일 파티』에 표현된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인 강간사건의 시초가 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수병인 ‘윌리엄 보드’는 오키나와에 기착한 후 만취한 상태로 오키나와의 노파를 강간했는데, 이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오자 해안 절벽으로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최초의 성폭행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페리내항’ 110주년은 장구한 미군 범죄의 역사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新城俊昭, 앞의 책, 196쪽 참조.

그러나 차이도 있었다. 한국에서 『분지』가 발표된 직후 남정현은 반공법 위반으로 정치적·법적 탄압에 직면했다. 한국전쟁과 분단을 거쳐 군사정부가 통치하는 체제 속에서 ‘미국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일은 ‘반공주의’의 거센 탄압을 초래하는 일이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베트남 파병 역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강제된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강권통치를 실력으로 지지하는 배후였기 때문이다.⁵¹⁾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군에 의한 강간이나 미군의 가족에 대한 추행을 통한 알레고리적 비판은 ‘반미사상’과 ‘반미감정’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탄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오시로의 『카테일 파티』는 발표 직후인 1967년 일본 본토에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는 최초의 오키나와 소설이 되었다. 이 소설을 발표할 당시 오시로는 류큐정부의 통상과장으로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그의 신변에 끼친 영향은 없었다. 왜 이런 한국과는 상반된 현상이 가능했던 것일까? 일차적으로 오키나와 반환을 기정사실화 한 미국과 일본의 정세변화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 1965년의 사토 에이사쿠의 오키나와 반환의 공언 이후 오키나와 사회의 흐름은 조국복귀 운동으로 폭발했던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의 이른바 미국 패권주의 비판은 ‘반공법’의 통제 대상이되었지만,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서의 그것은 ‘분단’된 일본과 오키나와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일본 민족주의의 향수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카테일 파티』에서의 일본의 제국주의적 중국 침략에 대한 비판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오키나와에 전개된 미군 주둔의 역사성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소설을 한국에서처럼 단순히 ‘반미사상’이나 ‘반미감정’을 표현한 소설로 단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1)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이현주 역,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일조각, 2019, 348쪽.

오히려 이 시기 오키나와에서의 가장 급진적인 담론은 일본으로의 ‘반(反)복귀론’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전쟁의 비극을 가해자 의식으로 승화시켜 아시아 민중과 연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류다이분카쿠(琉大文學)』 동인 쪽에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패권주의 모두를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오키나와의 진정한 ‘자립’과 ‘주체화’의 문제를 문학과 사상을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었던 급진그룹이었다.⁵²⁾ 그렇게 본다면 오시로는 일본으로의 ‘동화(同化)’와 ‘이화(異化)’ 사이에서 방황하는 중도적 작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저간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분지』와 『칵테일 파티』의 알레고리와 리얼리즘이 어떤 측면에서 가능했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분지』의 알레고리 속에 ‘일본 문제’가 삽화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구조적 모순은 그것을 배태한 일본 식민주의와의 연속성과 단절의 의미를 물을 때 더욱 명료해진다. 『칵테일 파티』는 이런 질문의 이중성을 내포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분지』의 독백에 비해 다성적(多聲的) 담화와 등장인물의 풍부한 내면적 고뇌가 발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52) 오키나와에서의 ‘복귀론’과 ‘반복귀론’의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정영신, 『오키나와 복귀운동의 역사적 동학: 동화주의의 형성과 전환, 비판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23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3. 12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남정현, 『남정현 문학전집1: 단편·중편소설』, 국학자료원, 2002.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 손지연 역, 『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선집』, 글누림, 2016.

2. 단행본

모리 요시오(森宣雄), 김용의·김희영 역, 『전후 오키나와의 평화운동』, 민속원, 2020.

오길영, 『포스트미메시스 문학이론: 루카치에서 들뢰즈까지』, 느티나무책방, 2018.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이현주 역,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일조각, 2019.

임현영, 『한국소설, 정치를 통째하다』, 소명출판, 2020.

작가연구위원회편,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3. 논문

강진호, 「외세의 질곡과 민족의 주체성」,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61-75쪽.

구중서, 「현실을 초극하는 집요한 문학정신」,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40-42쪽.

김병걸, 「상황악에 대한 끈질긴 도전」,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43-51쪽.

김보영, 「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내용과 문제점」, 『내일을여』

는역사』 제3호,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00. 10, 108-120쪽.

김형중, 「남정현 소설에 나타난 정신병리와 권력의 테크놀로지」,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0. 2, 295-316쪽.

류양선, 「풍자소설의 민족문화적 성과」,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94-107쪽.

박정이, 「오시로 다쓰히로 『카테일파티』에 나타난 전후 '오키나와'의 위상」, 『일어일문학』 44,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11, 229-242쪽.

백지운, 「폭력의 연쇄, 연대의 고리」, 『역사비평』 103, 역사비평사, 2013. 5, 333-358쪽.

손지연, 「젠더 프레임을 통해 본 미 점령기 오키나와 소설 : 오시로 다쓰히로와 히가시 미네오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5, 중앙어문학회, 2013.9, 295-319쪽.

_____, 「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에서 '미군'이 내포하는 의미 : 오키나와 · 미국 · 일본 본토와의 관련성을 시야에 넣어」, 『일본연구』 39,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8, 153-176쪽.

_____, 「패전 전후 제국/오키나와 청년의 중국체험과 마이너리티 인식」, 『전후 오키나와 문학을 사유하는 방법』, 소명출판, 2020, 351-375쪽.

임현영, 「반외세 의식과 민족의식」,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170-192쪽.

정영신, 「오키나와 복귀운동의 역사적 동학: 동화주의의 형성과 전환, 비판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23권,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3. 12, 139-178쪽.

정희진, 「한국전쟁과 식민지 남성성」, 『녹색평론』 2020. 5-6, 104-105쪽.

최현식, 「(신)식민주주의의 귀환, 시적 응전의 감각-1965년 한일협정과 한국현대시」, 『현대문학의 연구』 70,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2.

28, 241-321쪽.

하상일, 「식민지의 연속성 비판과 동아시아적 시각의 확장」,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3, 35-64쪽.

한승헌, 「남정현의 필화, 「분지」 사건」, 『남정현 문학전집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278-315쪽.

4. 국외자료

大城貞俊, 『沖繩文学への招待』, 琉球大学ブックレット, 2015.

『文芸春秋特別編集 芥川賞・直木賞150回全記録』, 株式会社 文芸春秋, 2014.

成田竜一, 「“悔恨”が誘発する思想-戦後の日本知識人の軌跡」, 『世界』, 2015. 8.

新城俊昭, 『琉球・沖縄史』, 編集工房 東洋企画, 2014.

林博史, 『米軍基地の歴史』, 吉川弘文館, 2012.

<Abstract>

In 1960s Korean and Okinawa fictions,
Awareness and Criticism of American
military hegemony

- Focusing on “Land of Excrement” in Nam
jeong-hyeon and “Cocktail Party” in Oshiro Tatsuhiko

Lee, Myoung-Won*

This paper discusses how U.S. military hegemony is perceived in the fictions of Nam Jung-hyun and Oshiro Tatsuhiko. Nam Jung-hyun is asking about the privileged status of the U.S. Forces Korea in “Land of Excrement”. It was very difficult to ask about the nature of America in Korea in the mid-1960s. After the Korean War, the U.S. military had a privileged position in Korea, an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Korea was using it as a political leverage to oppress its opponents.

In the mid-1960s, South Korea reached its peak due to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Agreement and the dispatch of troops to Vietnam. Nam Jung-hyun believes that the U.S. was behind the ongoing situation regardless of the will of Koreans. He asks Hong Man-soo’s remarks and actions in “Land of Excellence” about the nature of American military hegemony. However, even if it was a fiction, it was a huge political taboo in Korea under anti-communist law to ask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United States. In “Land of

* Kyung Hee University.

Excrement”, Hong Man-soo’s rape of the wife of the U.S. military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an allegorical narrative that he would face a nuclear attack by the Pentagon because of this political taboo.

Oshiro Tatsuhiro is exploring the political situation in Okinawa under the U.S. military occupation system through “Cocktail Party”. Unlike Nam Jung-hyun, Oshiro Tatsuhiro’s fiction was written as a method of realism. The Okinawans, Japanese, Chinese, and Americans in the novel all have different memories of the Asia-Pacific War. Those memories confuse the characters with conflicting values such as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invasion and sacrifice, occupation and obedience. In particular, the main character, “I” is the perpetrator of the Chinese invasion and suffers from internal divisions as a “victim” of the occupation of the U.S. military.

In the fiction, the main character’s daughter is raped by the U.S. military, but the reality of Okinawa, which is not legally authorized to punish it, is sharply revealed. With Okinawa’s lack of sovereignty and citizenship sharply highlighted, the novel asks about the nature of the colonialism of the United States occupying Okinawa.

Key Words: Korea-Japan agreement, military hegemony, return movement to japan, U.S. military crime, allegory, post-colonialism, Nam Jung-hyun, Oshiro Tatsuhiro

■ 논문접수 : 2021년 7월 30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3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17일